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관음종 총무원장상)

정토에 가세요

김 송 연 〈광주시 동구 소태동〉

1년 넘게 병석에서 암과 투병하시던 엄마가 돌아가신지 8일이 되었다. 지난주 수요일에 돌아가셔서 3일 전에는 초재를 지냈다. 지난해 9월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서울대병원과 단국대병원에서 두 번의 척추 수술을 받고 이후 주욱 집과 대학병원을 오가시며 병마와 싸워오셨다.

하루만 일을 해도 덩치 큰 장정들이 맥을 못쓰고 나가 떨어지는 2만평이 넘는 감밭 농사를 혼자 지으시면서도 2-3시간 겨우 눈을 붙이시고 전국의 공판장으로 도매일을 하러 다니셨다. 그러면서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억척스런 분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늘을 원망했었다.

25년전 어린 자식 다섯을 두고 무책임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그 모든 짐이 엄마에게 떠넘겨졌지만 엄마는 한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을 입밖에 낸 적이 없다. 그 가난한 살림살이에서도 절에는 열심히 다니셨다. 매년 천도재 지내드리고 가족수마다 촛불 켜놓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어질게 사셨는데……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좀가분하게 살 만 하니까 말기암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60 평생 죽어라 고생만 하시던 엄마의 몸뚱아리에 무슨 훌륭한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암이 들러붙어 당장 죽여버릴 것처럼 단단히 옥죄어두고 그렇게 불쌍한 한 인간을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다니……

엄마에게 병이 나자 나는 저절로 부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이 스물아홉에 양친부모 다 데려가 버리시면 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세상에는 못된 짓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큰 죄값을 받는게 우리 엄마여야 하느냐고.

설령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한 순간에 목숨을 끊어 버리시지 죽을 고비는 왜 그렇게 많이 주셔서 못난 자식들 가슴에 그리 큰 대못을 박으시냐고. 엄마 빨리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평생 부처님 원망하며 살거라고.

엄마가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바락바락 소리를 쳐대며 부처님 같은 건, 그 원력의 은혜로움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비웃어 댈거라고…

엄마 앞에서는 다 잘 될거라, 나을거라 위로를 해드리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르서는 점점 죽음의 늪으로 빨려드는 엄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처음엔 엄마가 무조건 살아계셔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평생을 낑낑만 맞으며 살아가신다 할 지라도 내 곁에서 극진한 병간호를 받으며, 효도를 누우셔서 나마 받아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다였다.

그래서 엄마가 약만 먹어도 컥컥 토해내는 토사물도 더럽다 생각않고 치워드리고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기저귀가 행여 엄마를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까, 섬유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장운동을 할 수 없는 환자 몸이라 항문가득 딱딱한 덩어리가 빠져 나오지 않아 항문 맛사지를 해가면서 돌덩어리 같은 대변이 항문을 찢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엄마가 행여 민망해 하지는 않을까 무척이나 신경을 썼는데 그런 자식의 정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는 점점 이 세상 사람의 껍질을 벗겨내고 계셨다.

96년 가을부터 오빠의 소개로 한마음선원 공주지원에 다니면서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내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주기 시작한 것이다. 주머니를 비워내도 마음은 채워지기 시작했고, 다소 상부적이고 타인의 눈을 의식해 꼼꼼하게 규정지었던 인생의 틀도 조금씩 허물어뜨려 가고 있었다. 남도 다름아닌 나라는 동일감이-다소 낯선감이 아주 사라지진 않았지만- 자츰 내 자신을 세상밖에 꺼내놓고 무슨 색깔에 갖다 대어도 어울릴 수 있는 자유로운 색채로 물들어 가고 있었다.

오빠는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는 도반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나에게는 올케이기 전에 훌륭한 도반이다. 올케는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엄마 때문에 토요일마다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 똥기저귀에 토사물을 치워야 하는 처지였지만 한 번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늘 웃는 낯이었다. 몸이 녹아나도록 정성껏 병수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큰스님의 가르침이 일상생활 살아가는 생각이 짧은 중생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지팡이가 되는지 감탄을 하게 된다.

엄마가 아프신 이후로 난 절에도 못 다니고 병수발을 하느라 마음이 참 가난해졌다.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엄마를 보며 난 조금씩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올바른 방식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때 나에게 올바른 깨우침을 주었던 건 역시 새언니의 지극한 믿음이었다.

하루는 내가 관(觀)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딱 잘라서 "그것은 지극히 관을 한게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나 포기한 것이다"며 따끔한 일침을 놓는 것이었다. 정말로 엄마가 몸을 벗는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것마저 그 자리에 놓고 오로지 주인공에게 맡겨두고 관해야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새언니도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살려보기 위해 거기에 착(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큰스님을 친견하고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 착 때문에 그렇게 엄마가 아파하셨나 보다고 자신의 짧은 믿음을 자책하고 있었다. 이제는 마음을 한데 모아 고통없이 몸을 벗게 해드리는게 최고의 효도인 것 같다고, 오로지 그 자리에 맡겨두고 관을 한다고 했을 때 일순간 나는 언니의 믿음에 질투를 느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렇게 깨달음이 늦을까?

내 멋대로, 내 색깔대로 편하게 공부하느라 생각이 많이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나는 며칠간 처음 선원에 나갔던 그 초발심으로 관하기 시작했다. 틈이 촘촘한 체에다 엄마에 대한 미련과 착을 잘 걸러내가고 있던 어느날, 기저귀를 갈아드리던 중 엄마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셨다.

"송연아!"

"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고것이 아니고... 후우, 인자 징글징글하다"

"뭐가요?"

"요렇게 사는 것이."

"... 요렇게 사는게 뭔데요?"

"우리 금쪽같은 새끼들 죽어라고 귀하게 키워놓고 다 고생시킴서 내가 뭔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라고 죽지도 않고 억지로 살아갈까 싶어서야."

"... 그럼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엄마는 60평생 죽어라 고생은 했지만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다 잘되고... 아파서 그렇지 그것도 못해보고 젊어서 죽은 사람보담은 덜 억울하시죠?"

"그라기야 하제… 그래도 억울하다. 왜 안글랐나, 나도 사람인디, 부처님한테 나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맨날 빈다."

"그러세요?… 그래요. 엄마도 지겹기도 하실거예요."

"죽으면 나비되어서 세상 천지를 훨훨 날아다닐란다."

"나비만 날아다니나요? 천사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세요. 엄마 날개는 참 따뜻할 거예요. 자식들이 힘들어 하고 외로워할 때 두 날개로 꼬옥 안아주세요."

"내가 천사가 된다고야?"

"그럼요. 엄마는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대하셨잖아요. 많이 아프셨으니까 부처님이 적어도 천사로는 만들어 주셔야지요. 아님 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제가 못다한 효도 다 받으시던지요."

"니가 속 썩인거 다 갈니라고 마음고생 시키면 어찌라고?"

"엄마 똥기저귀 갈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고소하게 끼니마다 누룽지 만들어 드린 것 생각해서 많이 속썩이진 마세요."

"그라믄 그냥 천사할란다."

"하하…. 그러세요. 엄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엄마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헌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는게 죽음이라 전혀 두려워 할 것이 없는 거라고…… 죽음을 눈앞에 둔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여유를 부리며(?) 다음 세상을 기대해 보는 것도 큰스님의 원력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일 것이다.

처음엔 마음이 여유로와지는 것만으로도 선원과 인연맺은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아프신 엄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느라 오랜 시간동안 알게 모르게 믿음이 깊어진 것 같다.

돌아가시기 3일전 아침, 엄마는 병실에 혼자 남은 나의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는 우시면서 말했다. "송연아, 나중에 큰스님 찾아 뵙고 박사님(엄마가 다니시던 절을 지으신 스님) 찾아뵙고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려라."

"뭘요?"

"그제 내가 그렇게 아파서 잠을 못 잔 것이 불쌍했는지 큰스님이 나를 밤새 지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는 오랜만에 깊이 많이 잤다."

"그러세요."

"내 침대 주변에 온통 약 넝쿨이 돌러싸고 있다. 큰스님이 아프지 말라고 밤새 내내 지켜주시고 약초를 캐다 주시드라. 내가 뭣이라도... 다른 절에 다니느라 큰스님을 실상 믿지도 않았는디… 다 니 덕분이다. 고맙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엉엉 우셨다.

그 꿈을 곰곰히 생각하다가 엄마에게 여쭈었다.

"그럼 엄마,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되든 다 부처님 뜻이라고 원망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라믄! 인자 몽땅 맡겨놓고 하나도 원망 안할란다."

"그래요.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받아들이시는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거죠. 만약에 엄마 돌아가시면 49일동안 제가 선원에서 엄마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불공 많이 드릴거니까 행여 나쁜 곳으로 빠지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 고맙다. 너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죽음에 관한 단어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며칠 후 선원에 잠깐 가서 엄마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지극한 마음을 내던 그 시간 엄마는 몸을 벗으셨다.

그간의 가슴아픈 시간들도 참 감사하고, 엄마가 곁에 있지 않아도 좋은 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실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도 감사하다. 내 자신도 그 큰 공부를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게 됐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부처님을 원망했어도- 단 며칠 간이었지만 - 벼락을 내리지 않으신(?) 부처님의 너그러움에도 감사하고. 선원에 못 가도 새언니, 오빠를 통해 흐트러짐 없이 마음공부를 하게된 것에도 감사드린다.

엄마가 부디 정토에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덜 수 있도록
나는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헌옷 벗고 새옷 입는게 죽음이라…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49일동안
제가 불공 많이 드릴 테니까
행여 나쁜 곳으로 빠지지 마세요

그림 · 이준석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 특허 연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탑돌이등, 제등행렬용등도 있습니다.

※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 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 등을 보급합니다.
· 이제 사찰의 법당용 비단 등을 항상 새 등으로 등 공양을 올리는 길이 열렸습니다.
·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 등 연 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종류〉 · 사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등 통이 있는 경우- 비단 연 잎
· 사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등통이 없는 경우 - 등통+ 비단 연 잎
· 1-3년 후 등 통만 있으면 비단 연 잎으로 새 공단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연등규격(지름)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디자인 : 대구 여래기획
전화 : 053)426-3395~6